

진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학부모-자녀 대화법

학부모님께서 자녀의 진로 스트레스 극복을 돕고 싶다면,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법이 필요합니다.
아래의 예시를 보며 현명한 대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.



요즘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.
괜히 짜증만 나고 기분도 축축 처져요.

◀ 대화의 Tip①

자녀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자녀가 속마음을
털어놓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. 다그치거나 답을
주기보다 자녀의 말을 먼저 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.

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엄마나 아빠가 스트레스 받을 때 ○○이처럼 똑같은
증상을 겪었거든. 누구한테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지는데, 엄마한테 얘기해 볼래?



친구들이랑 진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. 다른
친구들이 진로 동아리 활동하면서 대회 준비하는 것
보면 저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요.
저도 방향을 정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긴 한데
무언가를 계속 더 채워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겨요.

◀ 대화의 Tip②

청소년기 자녀는 불안이나 긴장감을 조절하지
못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
합니다. 자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 대신,
칭찬하며 '할 수 있다'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
건넌다면 자녀는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.

엄마는 ○○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지더라. 그런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하지?
너무 앞서가려고 하다 보니 돌에 발이 걸린 게 아닐까? 조금 힘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 ○○이는 훨씬 더 잘할 것 같아.



단순히 불안감 때문인 것 같지는 않아요.
저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더 속상해요.

▲ 대화의 Tip③

불안을 없애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
것도 좋은 대화입니다. 진로 활동을 하면서
자녀가 보완하면 좋은 점 등을 넉넉히 말해
준다면 자녀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.

진로 동아리나 대회처럼 눈에 띄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○○이는 목표를 정해 꾸준히 노력하는 분야가 있으니
속상해할 필요 없단다. 네 나름의 방식으로 진로를 개척하며 만족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어.
만약 동아리나 대회에 정 참가하고 싶다면,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두었다가 다음 기회에 해 봐도 늦지 않아.

